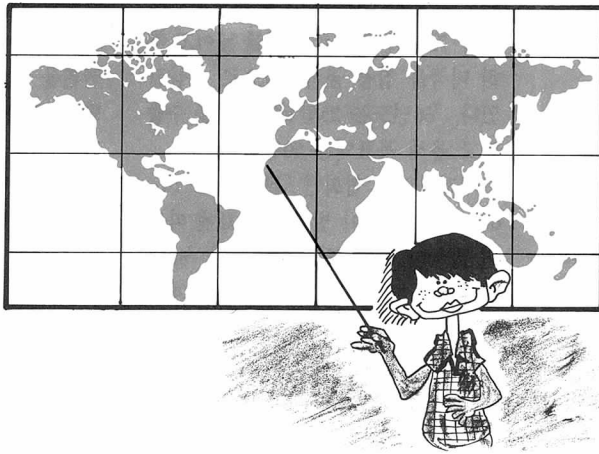


國際氣流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電氣通信改革論議는 80년대 전반에는 독점유지와 대 경쟁도입과의 논쟁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전기통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 미래지향적으로 고찰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전기통신, 정보산업을 21세기를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전망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조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基幹通信網 및 基本通信서비스(전화)의 독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경쟁분야에는 단말기기, 부가가치통신 서비스, 이동체 및 특정 위성통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류의 대표격은 유럽공동체이다.

EC는 1987년 6월 「EC공통의 전기통신정책 및 기기시장의 발전」이라는 Green Paper를 발표하고 1988년 봄에 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유럽에서는 북유럽 제국이 EC와 거의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가 EC형 정책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도 이와 비슷하다.

두번째 조류는 기간통신망이나 기본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최근에는 뉴질랜드와 홍콩이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뉴질랜드정부는 금년 4월부터 기간통신망을 포함한 전면 자유화를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홍콩은 작년 9월에 발표한 CATV면허에 CATV네트워크를 제2통신 네트워크로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화서비스와 같은 일부 기본 서비스의 제공은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전기통신의 자유화,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가 민영화, 공산권에서는 헝가리가 자유화 도입을 위해 현재 논의를 진행중이다.



미국

US 스프린트社, 低價交換서비스 개시

미국의 유에스 스프린트(US Sprint)社は 금년 상반기부터 56Kbps의 교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약 3,000km를 넘는 장거리에서 24시간 계속 접속해 놓아도 전용요금보다 저렴하게 된다.

이미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T & T의 1분당 접속요금이 0.4~1달러인 것에 비해 유에스 스프린트는 0.09~0.14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음성과 56Kbps 회선도 동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위의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통상의 전화서비스와 달리 지역전화회사의 서비스를 경유 할 필요없이 同社의 VPN(仮想閉域網) 경유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IBM, 미·일간 국제 VAN 서비스

IBM은 미국과 일본국내간에 VAN서비스를 상호 접속한 국제 VAN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개시한다.

일본 IBM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는 동사의 VAN서비스 이용기업은 일본내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미국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미국에서의 이용기업과도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IBM의 참여로 국제 VAN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업계 타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된 것이다.

서비스명은 「인터내쇼날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컴퓨터간의 데이터 전송으로서의 IBM 독자 체계인 「SNA」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IBM-NMS(네트워크 관리 서비스)」와 미국 IBM의 「IBM-IN」을 상호 접속하여 실시한다.

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기업은 SNA로 구축되어 있는 사무처리시스템을 미·일 쌍방의 단말기를 통하여 동

일한 조작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일본 국내 네트워크 이용료가 1천바이트당 6엔, 국제 네트워크 이용료가 12엔 정도가 될 예정이다.

IBM은 금후 전자메일 서비스와 축적교환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부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

영국, 新公衆無線電話「TELE POINT」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중 코드리스 전화「TELE POINT 또는 CALL POINT」에 대한 사업인가를 해줄 예정이다.

브리티시·텔레콤, 페란티, 플레시, 머큐리, 필립스 등이 각각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11개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4개사를 선정, 서비스제공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무선전화기는 일단 역, 공항, 변화가, 주유소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기지국에 신호를 보내면 일반전화 네트워크와 회선으로 연락되어 어느곳으로나 자유로이 발신만이 가능한 공중무선전화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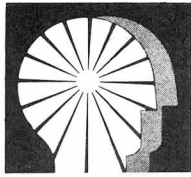
基地局은 사업자가 설치하고 포켓형 무선전화기는 개인이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한다. 무선콜 범위는 약 100~150미터에서 가능하고 사용요금은 현재의 송수화가 가능한 휴대형 무선전화기 보다 월등히 싼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지국의 설치비용도 셀룰론 네트워크 설치비용의 20% 정도에 불과하여 비용절감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매혹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해 4월에 우선 런던부터 상용서비스가 개시된다.

CCITT, 통신과 방송의 융합 검토개시

작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에서 개최된 CCITT(국제 전신전화자문위원회) 제9차 총회에서 권고안의 심의와 작업방법의 변경 등에 대한 토의중 CCITT와 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간의 작업



國際氣流

조정이 검토되었다.

위성통신과 광대역 ISDN 등의 통신료가 넓어짐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희박해져, 융합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연구위원회는 전송방식과 장치관계의 SG XV, ISDN 등의 디지털 네트워크관계의 SG XVIII이다. 또한 화상부호와 광대역 ISDN, 그리고 방송분야에서 표준화된 CODEC에 대한 통신측의 활용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영국 BT, 일본에 자회사 설립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이 일본에 100% 자회사인 일본 브리티시텔레콤을 설립키로 했다.

일본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경주재원사무소를 승격시키고 최초 자본금을 1억엔으로 하여 시스템 판매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외국 통신사업자로서 일본에 법인을 설립한 것은 미국의 AT & T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일본

NIS, 국제 VAN서비스 개시

네트워크정보서비스(NIS)사는 영국에서 VAN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Timenet UK와 미국을 경유한 영국-일본간 VAN 서비스를 개시한다.

NIS는 이미 미국의 Timenet를 경유하여 영국의 BTI 및 MERCURY와 접속하여 VAN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영국내에서 VADS클래스(Class License for Value Added and Data Network Services)를 취득한 Timenet UK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Timenet UK는 이제까지 영국 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에 VAN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영국내 및 유럽,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간에 VAN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

放送衛星 운영방법 방향 검토

일본은 방송통신위성 BS-3(1991년 여름 발사예정)의 후속위성 BS-4에 대한 운영방법을 올해 3월까지 검토완료키로 하였다.

「위성방송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회」에 따르면 BS-4에 할당된 8개 채널 모두를 개방하고, 위성(하드웨어)의 조달, 운영법인과 방송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제공주체를 분리하여 면허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의 조달법인은 ① 기존의 통신, 방송위성기구(특별법인)를 개편한다. ② 정부와 민간의 출자에 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③ 민간만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등의 3개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에게는 시간단위에 의한 리-스방식의 가능성, 위성의 조달법인이 어느정도 편성권을 가질 것인가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아스키社, CATV에 대한 데이터 방송

일본 아스키社는 금년 5월부터 CATV에 대한 데이터방송의 시험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내용은 게임 등의 PC 소프트웨어 배송, 뉴스, PC 주변정보, 자사제품과 간행물의 안내 등이다.

동사는 MSX2 PC용 전용통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모뎀(전용접속장치)을 준비하고 있으며 분게이 케이블 네트워크 등 5개사 정도의 CATV사업자에게 일본통신위성(JC·SAT) 1호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배송하기로 하고 금년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나 CATV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요금, CATV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요금은 미정이다.

동사는 지난해 12월 자회사인 PC통신방송네트워크기획(PCN)을 설립한 바 있다.



國際氣流

특이한 뉴비지니스 성황

일본 오오사카에 있는 시스템하우스 오꾸라는 1987년 2월부터 팩시밀리를 활용하여 붐을 일으키고 있는 占보기와 각종 이벤트를 송신해 주는 특이한 사업에서 재미를 보고 있다.

同社가 개발한 「알파시스템」으로 사주작명, 운세, 성격, 궁합, 금전운동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전국의 약 3천 5백여 백화점, 상점, 미용실 등과 계약, 엽서정도 크기의 소정용지에 감정을 희망하는 내용의 메뉴를 접수하여, PC로 감정결과를 의뢰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오꾸라본사에는 10여대의 PC와 20여대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하루에 최대 6천건의 감정의뢰를 처리하고 있으며 메뉴당 감정료로서 5백~1천엔을 받고 있다.

同社는 신입채용때도 사주나 상사와의 궁합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하거나 종업원의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바이오리듬을 의뢰하여 근무일정을 짜는 용도로도 이용하고 있다.

「알파시스템」은 이외에도 시내쇼핑점 안내, 시가지도전송, 건강체크, 문서대필, 외국어번역 등을 서비스 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요리안내, 레저계획, 자동차구입, 투자 어드바이스 등을 추가 메뉴로 계획하고 있고, 지역 캠프회사와 연결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비디오텍스망에서도 유료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데 한달에 5백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서비스로 지난해 1억 5천만엔의 매출을 올린바 있고 3년제인 올해에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異품질간 통신을 위한 음성패킷화 검토

일본 전신전화(NTT)의 통신망종합연구소는 복수품질의 음성부호화방식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품질의 음성을 단말기간에 상호 취급이 가능한 다중품질음성 패킷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의 음성대역 압축방식은 압축방식에 맞는 단말기에 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NTT가 제안하는 BOA

(Bit Oriented Audio Packet)방식은 고품질음성을 취급하는 단말과 저품질음성 단말간에서도 교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샘플링주파수와 샘플링 비트수의 곱으로 부호화속도가 결정되므로 주파수와 비트수에 각각 수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몇개의 품질을 설정하여 고품질에서 저품질의 변환에서는 불요주파수와 비트를 내포하고 있는 패킷을 폐기하고 반대의 경우는 샘플링을 더해주게 된다.

주파수 또는 샘플링비트수만의 변환보다 밸런스를 가지는 부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태평양 신 해저케이블건설사 결정

일본의 국제디지털통신(IDC)과 영국의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 & W) 등이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태평양 신해저케이블(NPC)의 건설을 담당할 회사로서 일본 전기, 후지쓰그룹과 영국의 통신기기회사인 STC로 낙찰되었다.

올해 봄부터 총연장 8380km의 케이블 부설을 착공할 예정이며 수주금액은 4백억엔이 조금 넘는다.

동남아

싱가포르, 세계의 항만 네트워크 구축계획

싱가포르정부는 세계의 주요 항만과 각종 항만정보를 즉시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하였다.

항만정비의 고도정보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할 이 계획은 먼저 홍콩과 서독의 브레멘간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다음 네델란드의 로테르담과 일본의 요코하마간도 온라인화하여 세계의 항만정보를 집약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